

영암군 농협 조합장 선거 2건 선관위 조사중

군의원·농협전투 관련 의혹 선관위 조사결과 귀추 주목 불법확인 땀 후유증 불가피

지난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나고 지난 21일부터 조합장들의 본격 임기에 시작됐지만 선거운동과정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으며 결론이 나올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전남도선관위와 영암군선관위에 따르면 영암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 2건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진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 선거 불법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영암군의회의 B의원이 모 조합장 후보 비방 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개입 여부가 전남

도선관위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의원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중요도를 감안해 전남도선관위에서 영암군선관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전남선관위에서 내린 결론을 중앙선관위에 올린 뒤 그 결론을 가지고 최종 검토 후 조치 수준이 정해진다”며 “현재로서는 언제 최종 결론이 나올지 확답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C농협 조합장 선거는 현직 조합장과 1명 이사 출신 후보가 각축을 벌여 현 조합장이 3선에 성공했다.

C농협 D전투가 현 조합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져 영암군선관위가 조사중이며 위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D전투는 지난달 21일 사업실적 등을

적시해 단체대화방 등 SNS에 게시한 행위로 영암군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조합보답대회 기간이 선거 직후인 3월 13일부터 임에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에 상품권 5만원을 전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그는 상품권 배포 당시 마을이장들에게 조합실적이 적시된 방송원고를 배포하고 단체대화방에 조합실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적시함에 따라 위탁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D전투는 조합장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6일 모 식당에서 선거 출마자인 현 조합장과 감사 조합원 등과 부적절한 회동에 음식비용을 자신의 소유인 농업법인 카드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D전투는 “단체대화방에 조합사업실적을 게시한 부분과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조합상품권은 매년 조합에서 조합원

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은 타 지역보다 영농이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상품권도 2월 말께 배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선거 이틀 전 현 조합장과 감사 조합원 등과 회동에서 음식비용 지불에 사용된 카드는 회사 농협 법인카드가 아닌 본인 소유 1인 영농조합의 법인카드였고 선관위 조사 당시 다 소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영암군선관위는 “D전투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위탁선거법 제31조에 따르면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이병영 기자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슬로시티서 4월8일 개막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완도 청산도에서 펼쳐지는 ‘2023 청산도 슬로걷기축제’가 오는 4월8일 개막한다.

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봄봄봄, 치유 정원 청산도로 오라’는 주제로 5월7일까지 30일간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청산완보 스탬프 투어, 플로깅 캠페인, 은하수투어 버스, 청산진성 야간산책, 달팽이 엽서 보내기 등 슬로시티만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청산완보’는 청산도 슬로길 11개 코스 중 4개 코스 이상을 걷고 스탬프를 찍으면 상품을 주는 이벤트와 청산도의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청산 진성 야간 산책’으로 구성된다.

야간 투어 버스를 타고 주민해설사와 청산도의 곳곳을 탐방하는 ‘은하수 투어’, 엽서를 써서 보내면 1년 뒤에 도착하는 ‘달팽이 엽서 보내기’, 유채꽃이 활짝 핀 청산도에서 봄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세트 대여’ 등도 눈길을 끈다.

4월15일 개막식에 ‘나비야 청산 가자’를 주제로 나비 날리기, 힐링 콘서트, 명사와 함께 걷기 등도 진행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산과 바다 하늘이 푸른 청산도에서 그림의 여유를 만끽하며 힐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지역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지원 전남경진원, 맞춤형 컨설팅 제공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성희)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컨소시엄으로 광주·호남권(전남·전북·광주·제주) 소재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국비사업으로 두 기관에서 올해로 3년째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분야는 경영안정 컨설팅과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2개 분야로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최대 4월까지 비용(국비 90%, 자부담 10%)을 지원한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창의적 경영 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국비 100%) 및 경영 개선 바우처 최대 300만원(국비 80%·자부담 20%)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가치향상 △판로창출 △스마트전환 △경영·기술 혁신 △법률 지원 △점포개선 △지식재산권 등이다.

전남경진원과 전북경진원은 지난해 본 사업을 통해 광주·호남권 소상공인 400개사를 지원했으며 수혜 소상공인의 높은 만족도로 큰 호응을 받아 올해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600개사 이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접수는 28일부터 진행되며 신청은 소상공인컨설팅시스템(www.sbiz.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박근재 기자

강진군, 식목일 나무심기

강진군이 지난 24일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보은산 유아숲 일원에서 관내 유치부, 초등부, 학부모, 군 관계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그린 강진, 함께 심는 식목일’을 주제로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유아 등을 대상으로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추진해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미래 세대와 함께 희망을 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나무 심기 및 산림보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1ha면적에 동백나무 900본을 심었다.

동백꽃은 강진군의 군화(郡花)로 백련사, 영랑생가, 다산초당, 백운동원림 등에 분포되어 해마다 동백의 아름다움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심은 나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쏟기 위해 자신만의 이름을 짓고 이름표를 걸었으며 어린이 참가자들은 노랑, 빨강 등 아름다운 톨립화분을 선물로 받았다.

강진원 강진 군수는 “산림은 소중한 생명 자원이자 후세에 물려줄 미래 자원이다”며 “다양한 나무 심기를 추진해 도시경관 개선뿐 아니라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신안 부유식 풍력산업협회 출범 5개 발전사·신안군 등 참여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5개 발전사와 일반기업, 신안군이 참여하는 협회가 출범했다.

27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라마다프라자 자은도 호텔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신안군의회의장, 해상풍력 분야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신안부유식 풍력산업협회 발대식을 가졌다.

신안부유식 풍력산업협회는 회장사 OW코리아㈜ 5등 개 발전사와 5개 일반기업, 신안군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흑산권역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과 어업인 수용성 확보, 계통연계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유식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신안=홍일갑 기자



지난 24일 강진군이 보은산 유아숲일원에서 ‘함께 그린 강진, 함께 심는 식목일’을 주제로 나무 심기 행사를 시행했다. 강진군 제공

명현관 해남군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총력”

명현관 해남군수는 27일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등 유치 가능성이 높은 공모사업들을 준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 군수는 정례회의에서 “민선 8기에도 대규모 국비사업 유치로 해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130건, 159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공모사업 유치를 나서고 있다.

문화재청 주관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조성사업 공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

다.

마한역사문화권 관리·연구·전시의 거점 클러스터로 조성되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국비 400억원을 투입해 마한역사문화권 연구실과 전시관, 유적공원 등을 조성하게 된다.

해남군은 마한 전 시대(BC.2~AD.6)에 걸쳐 고고자료·문헌기록·민속자료를 보유한 전국 유일지역이라는 점에서 센터 입지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마한역사복원 전담팀을 구성해 역사문화권 정책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

획 수립과 문화재 시·발굴조사, 문헌 고증 및 마한민속 발굴, 디지털·영상기록화, 연구논문 및 발굴기록물 집성, 민관학 협력체계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위한 군민추진단이 발족하는 등 군민들의 동참 열기도 더해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군민추진단 의지를 모아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역사문화권 정비선도사업을 해남군에 유치함으로써 마한문화권의 균형잡힌 공동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군, 4060중년 감성 힐링 프로그램 운영 ‘성황’

강진군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서현미)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중년세대를 위해 ‘4060 중년 감성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4060세대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와 갈등, 사회적 역할 상실에서 오는 위기감을 겪는 불안정한 시기로 마음건강을 챙김으로서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

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홍보를 통해 4060세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우울 및 불안·스트레스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강의 △아트테라피를 통한 힐링체험(자화상 그리기 등) △옴니핏(뇌파·맥파) 검사 및 결과 상담 △우울증 선별검사 및 상담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고 스트레스 해소 및 대처법 등 정신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지난 해에도 지역민에게 마음 건강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의는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061-430-5305~7)나 국번 없이 1577-0199 또는 1393으로 하면 된다.

서현미 센터장은 “군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